

K팝 만드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담다

티빙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케이팝 제너레이션' 기획사·아티스트·팬덤 등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

미국 자유의 여성상 동상 위로 현 수막을 단 경비행기를 띄워 좋아하는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항공기에 필름을 붙여 내 아이들을 위한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광고판을 만든다.

총 4부작으로 제작된 티빙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케이팝 제너레이션'은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정착한 K팝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국내 최초 K팝 다큐멘터리'를 표방한다.

H.O.T 강타, 슈퍼주니어 이특, 샤이니 민호, NCT 도영,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이브(IVE) 등이 출연하고, 다양한 팬들과 대중음악평론가, 업계 관계자들이 K팝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31일 화상 인터뷰를 통해 만난 '케이팝 제너레이션' 정형진 기획총괄 프로듀서겸 패치웍스 대표는

"K팝을 하나의 사건이나 문화로 짚어주는 새로운 관점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정 대표는 "팬들이 바뀌는 것에 따라 아티스트들도 바뀌고 있는데, 4세대 아티스트들을 만나 보면 변화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신의 역할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놀라웠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1화는 케이팝 팬덤에 초점을 맞췄다.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해서 파고드는 일을 뜻하는 '덕질'이 세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룬다.

'케이팝 제너레이션' 기획 및 연출을 맡은 임흥재 책임 프로듀서(CP)는 "과거에 팬들은 수동적 존재로 머물렀지만, 오늘날 팬들은 산업 내에서 큰 영향력을 쥐고 있다"고 차이점을 짚었다.



티빙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케이팝 제너레이션'.

연합뉴스

이어 "K팝이라는 문화적 산업 안에서 팬들의 위치와 위상,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고 싶어서 특히 1화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임 CP의 말대로 다큐멘터리는 요즘 팬들이 소비자를 넘어선 창작자로서 K팝 산업을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담아낸다.

응원하는 가수의 신곡이 음원 차트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곡을 무한 재생하며 '스밍 풍공'을 하는 건

기본. 아이돌 영상 중 핵심만을 추린 바이럴 콘텐츠를 제작해서 대중에게 홍보하고, 생일에는 카페를 대관해 연예인 없는 연예인 생일 파티를 열기도 한다.

'케이팝 제너레이션' 스토리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차우진 평론가는 "K팝이라는 문화는 기획사, 아티스트, 팬덤이 균형감 있게 공존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영역을 나눠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트와이스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수상

브레이크스루 아티스트 부문... K팝 여가수 중 최초

결그룹 트와이스(사진)가 K팝 여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빌보드 위민 인 뮤직'(2023 Billboard Women In Music)에서 상을 받는다.

31일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3월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열리는 이 시상식에 참석해 '브레이크스루 아티스트'(Breakthrough Artist) 부문을 수상한다.

'브레이크스루 아티스트'는 그 해 음악 시장에서 의미 있는 도전

을 이뤄내고 두각을 드러낸 가수에 주어지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빌보드 위민 인 뮤직'은 한 해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경영진을 시상하는 행사다. 이 시상식에서 K팝 가수가 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트와이스의 두 번째 영어 싱글 '문라이트 선라이즈'(MOONLIGHT SUNRISE)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 핫 100' 진입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동생같은 반려견의 새 가족찾기"

김주환 감독 신작 '멍멍이'... 유연석·차태현 주연

"1000만 반려인이 함께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웃음)" 영화 '멍멍이'에서 주연을 맡은 유연석이 31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보고 있으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3월 1일 개봉하는 '멍멍이'는 민수(유연석 분)가 동생같은 반려견 루니의 새 가족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민수의 사촌 형 진국(차태현)이 이 여정을 함께한다. 연출을 맡은 김주환 감독은 세상을 떠난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생각하며 작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전작 '청년경찰' (2017)에서 두 경찰대생의 우정을 코믹하게 그려

냈던 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는 두 친척 형제의 브로맨스를 담았다.

김 감독은 "'멍멍이'는 두 친척이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찾아 나가는 여정"이라면서 "'청년경찰'이 젊은 아이들의 티카타카가 있는 코미디였다면, '멍멍이'는 일종의 '친척 버디극'"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에는 또 다른 주연 배우인 강아지 루니가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감독과 배우들은 강아지와 함께 촬영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 감독은 "강아지는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내버려 뒀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었다"고 회상했다.



왼쪽부터 유연석, 루니 역 출연진, 차태현, 김주환 감독.

연합뉴스

유연석은 함께 호흡을 맞춘 강아지 루니에 대해 "늘담도록 의젓한 친구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았다. (강아지에게) 없어서 (작품을) 찍은 것 같다"며 웃었다.

"루니는 이미 훈련된 견공이었지만, 오랫동안 키웠던 반려견의 느낌을 주는 건 교육으로 할 수 없잖아요. 촬영 전부터 훈련소에 자주 가서 놀아주면서 유대를 쌓았습시다. 그리고 나니가 촬영할 때 자연스레 여러 감정을 표현해주더라고

요. 제가 루니를 보면서 당달아 연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차태현은 "촬영할 때 여름이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개들은 피곤하다 싶으면 바로 들쳐보내고 휴식하게 했다"면서 "이야기말로 '개 팔자가 샅팔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2020년 6월 촬영을 시작한 '멍멍이'는 코로나19로 개봉을 2년간 미룬 끝에 관객을 만나게 됐다.

연합뉴스

르세라핌 '피어리스' 日 싱글 주간 1위



르세라핌 '피어리스' 日 싱글 주간 1위

결그룹 르세라핌(사진)의 일본 데뷔 싱글 '피어리스'(FEARLESS)가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 소속사 소스뮤직이 31일 밝혔다.

해의 여성 가수가 데뷔 음반으로 이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5년 3개월 만이다. '피어리스'는 발매 첫 주 22만 2000여장이 팔려 K팝 걸그룹 일본 데뷔 싱글 첫 주 판매량 부문에서

아이즈원1이 세웠던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아이즈원 출신 사쿠라와 김채연이 르세라핌으로 재데뷔했으니 자신들의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르세라핌은 "빛나는 성과를 얻게 돼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퍼포먼스와 음악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JIBS/SBS, EBS1, and EBS2, listing programs and times.

운세 (Horoscope) section for February 1st,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predicted fortunes for the day.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MBC 064-740-2432, JIBS 064-740-7800, KCTV 064-741-7723, 제주CBS 064-748-7400, TBN제주교보방송 064-717-8114